

중세 우리 나라에서 외국어연구의 특징

안 종 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언어학발전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있을것입니다. 이 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학자들은 우리 나라의 언어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전집》 제32권 360페이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가진 슬기로운 우리 인민은 자연과 사회의 구속과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오랜 투쟁과정에서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담긴 문화적 재부들을 수많이 창조하여왔다.

우리 인민은 일찍부터 주변나라들과 정치, 경제, 문화적인 교류를 진행하여오면서 그 나라들의 언어를 학습하고 연구하여왔으며 이 과정에 여러가지 류형의 외국어관계의 언어유산들을 적지 않게 남겨놓았다.

이 글에서는 중세 우리 나라에서 진행한 외국어연구의 특징에 대하여 밝혀보기로 한다.

중세 우리 나라에서 외국어연구의 특징은 무엇보다먼저 외국어연구가 주로 동아시아 나라들의 언어에 한정되어 진행된데서 찾아볼수 있다.

봉건사회발전의 력사적특수성으로 하여 중세 우리 나라에서의 외국어학습은 주로 한어, 몽골어, 녀진어, 왜어 등 주변나라들의 언어를 기본으로 하여 진행되었으며 학문으로서의 외국어연구도 이 4개 나라의 언어에 국한되어있었다.

우리 나라에서의 외국어연구는 력대 통치계급의 대외관계목적실현을 위한 요구로부터 제기되어 국가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줄기차게 진행되어왔다.

우리 나라에서는 세나라시기에 벌써 동아시아나라들의 언어를 학습하는 국가적대책을 세우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국가적인 기관을 설치하였으며 동아시아언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

고구려에서는 372년에 《태학》을 설치하고 박사를 두었으며 백제에서도 같은 시기 박사를 두었다. 신라에서는 682년에 《국학》을 설치하였으며 746년 국학에 박사를 두어 한어연구를 진행하였다.

고려시기에는 《사대》라는 국가적인 외국어연구기관이 정식으로 설치되었다.

우리 나라에서 외국어연구의 심화발전과 함께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기관은 오래전부터 있었을것이나 현존기록을 통하여 알수 있는것은 국가적인 정식역학기관으로서 궁예가 세운 《사대》부터였다고 볼수 있다.

《사대는 여러 나라 말을 배우고 번역하는 일을 담당하였다.》(《삼국사기》 권50 렬전)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정식 외국어연구와 교육을 위한 역학기관을 설치한 기록으로서 가장 오랜것으로 된다.

이보다 먼저 신라에 《왜전》이 있었다는 기록도 나오는데 그에 의하면 《왜전》은 신라 때 일본에서 오는 손님을 접대하던 기관이었던것으로 보아진다. 이러한 사실은 왜어에 대한 학습과 연구가 이 시기에 널리 진행되었을것이라는것을 보여준다.(《삼국사기》 권38 잡지 7)

고려시기에 이르러 주변나라들과의 대외관계가 더욱 활발해짐에 따라 역관양성과 외

국어교육에 대한 국가적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여러가지 필요한 대책들도 세워지게 되었다. 역관양성과 외국어연구를 위한 봉건정부기관으로서 《통문관》*¹, 《한문도감》, 《설원》, 《상원》 등 각이한 명칭으로 불리운 외국어연구기관이 설치되어 한어연구와 학습을 진행하였으며 사역원*²이 설치되면서부터 거기에서 한어연구와 역관양성사업을 전적으로 맡아서 진행하는 체계가 세워지게 되었다.

*¹ 《고려사》 권 제76 백관 1에 의하면 《통문관》은 1276년에 한어의 학습과 역관후비양성을 위한 기관으로서 설치되었다. 통문관에서는 왕궁안에 설치된 관청들가운데서 7품이하 관리로 나이 40살미만의 사람들을 골라서 한어를 학습시키고 역관으로 키웠으며 대외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까지도 맡아보았다.

*² 사역원의 설치년대와 관련하여서는 명백한 사료가 없으나 통문관과 관련하여 《고려사》에 《후에 사역원을 두고 역어를 말아보게 하였다.》(《고려사》 권 제76 백관 1)는 기록과 1389년에 10학을 설치하면서 사역원에 리학교수관을 두었다(《고려사》 권 제77 백관 2)는 기록이 있는것으로 보아 이미 고려말기에 사역원이 엄연하게 존재하고있었으며 이것이 조선봉건왕조초시기에 그대로 개편된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가적인 체계에 따라 13세기에 벌써 한어교과서인 《로걸대》와 《박통사》가 편찬되어 널리 리용되었고 《집운》(송나라), 《오음집운》(금나라), 《운회》(원나라) 등 여러 운서들이 학습에 리용되었으며 《레부운략》이 과거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준도서로 널리 리용되기도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몽골어에 대한 연구와 학습은 고려시기인 13세기부터 공식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녀진어와 왜어연구 역시 고려시기부터 시작되어 조선봉건왕조후반기까지 줄기차게 진행되었다. 왜어연구는 한어연구와 마찬가지로 고대로부터 진행되었을것이나 정식으로 그 연구와 관련한 기록이 나오는것은 고려시기부터였다.

조선봉건왕조는 1393년에 주변나라들의 언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으로서 사역원을 개설하고 한학, 몽학, 청학, 왜학 등 동아시아나라들의 언어에 대한 학습과 연구를 국가적으로 널리 장려하였다.

이와 같이 중세 우리 나라에서 진행한 외국어연구는 국가적인 관심밑에 주변나라들의 언어에 대한 연구에 국한되어있었다.

중세 우리 나라에서 외국어연구의 특징은 다음으로 15세기이후부터 외국어관련도서들이 대대적으로 간행된데서 찾아볼수 있다.

우선 《홍무정운역훈》, 《사성통고》, 《사성통해》, 《삼운보유》, 《화동정음통석운고》, 《규장전운》, 《삼운성회》 등의 운서류들이 수많이 편찬간행되었다.

대표적인 운서로서 《홍무정운역훈》을 들수 있는데 이 책은 신숙주를 비롯한 10여명의 학자들이 《훈민정음》창제직후인 1445년경부터 1455년까지 약 10년동안에 걸쳐 간고하게 편찬한 최초의 운서였다.

세종은 표음문자인 훈민정음을 창제하자마자 곧 한어의 학습을 위해서는 그것을 기록하는 한자의 중국본토자음을 익히는 일이 급선무라고 생각하였다. 이로부터 세종은 《홍무정운》에 수록되어있는 글자들의 자음을 정확히 파악할수 있게 이 책의 수록자들에 정음자로 그 음가를 기록하도록 신숙주 등에게 지시하여 《홍무정운역훈》을 편찬하게 하였다.

또한 《통가수감》, 《대광익회옥편》, 《운회옥편》, 《전운옥편》 등 옥편류들이 적지 않게 간행되었다.

대표적인 옥편으로서 《전운옥편》을 들수 있는데 이 책은 18세기말에 《규장전운》을 모체로 하여 간행된 한자사전이었다.

《전운옥편》은 상, 하 2권으로 되어있는데 모두 10 896개의 한자를 부수와 획순에 따라 배열하였으며 한자음을 정음자로 표시하여놓았다.

한자음은 《규장전운》에서 쓴 규범음과 속음 그리고 《화동정음통석운고》에서 쓴 정음의 세가지로 나누어주었다. 뿐만아니라 매 한자마다 소속된 운을 기록하고있으므로 《규장전운》과 같은 운서보다 실용적이며 한자통용음이 다른 한자음에 비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있다.

또한 《역어지남》, 《역어류해》, 《몽어류해》, 《한청문감》, 《왜어류해》, 《방언류석》과 같은 적지 않은 사전류들이 편찬간행되었다.

대표적인 만주어관계의 사전으로서 1778년 혹은 1790년에 편찬간행된것으로 보이는 《한청문감》을 들수 있다.

《한청문감》의 편찬에는 한학검찰관으로서 리담을 비롯한 6명이, 청학검찰관으로서 김진하를 비롯한 2명이 참가하고 한학교정관 13명, 청학교정관 5명, 한학서사관 6명, 청학서사관 7명, 감인관 1명이 참가하였다. 당시 한어와 만주어에 정통한 유능한 학자, 전문가가 40명이나 참가하여 이 책을 편찬하였다는것은 이 책의 편찬과 간행이 중요한 국가적인 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었다는것을 의미하며 책의 분량도 그만큼 방대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또한 《로결대언해》, 《박통사언해》, 《몽어로결대》, 《첩해몽어》, 《첩해신어》, 《화음계몽언해》 등의 회화집들이 대대적으로 편찬되었다.

대표적으로 《로결대》, 《박통사》류의 회화집을 들수 있는데 《로결대》, 《박통사》는 고려시기에 한어학습을 위한 회화교재로서 처음으로 출판되었다.

그후 조선봉건왕조시기까지 중단되지 않고 끊임없이 간행된 이 부류의 회화교재들 가운데서 《로결대》류는 《몽어로결대》, 《청어로결대》, 《왜어로결대》 등 동아시아나라들의 모든 언어로 편찬되었다.

이러한 동아시아언어학관계의 도서들은 오늘날 해당 외국어에 대한 력사연구에서뿐 아니라 조선어력사연구에 있어서도 귀중한 자료로 되고있다.

중세 우리 나라에서 외국어연구의 특징은 다음으로 대를 물려가며 역학에 종사한 역학자들이 적지 않았다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중세 우리 나라의 언어학분야에서 《역학》이라는 학술분야가 독자적으로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여기에 종사한 사람들을 《역관》 또는 《역학자》라고 불러왔으며 그들이 남겨놓은 언어학관계의 도서들에 대하여서는 《역학서》라고 불러왔다.

우리 나라에서 동아시아언어연구가 국가적인 관심과 조치에 의하여 일찍부터 전문적인 언어연구기관들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오는 과정에 외국어연구 및 우리 나라의 언어학발전에 기여한 역학자들도 수많이 배출되었는데 그가운데는 대를 물려가며 역학에 종사한 역학자들이 적지 않은 자리를 차지한다.

그 대표적인물로서 조선봉건왕조전반기에 활동한 최세진을 들수 있다.

최세진은 16세기에 국어는 물론 한어와 리문에도 밝은 이름난 국어학자인 동시에 역학자였으나 《한어에 능통하고 집안의 직업을 제대로 이어서 다행히 과거시험에 합격하고 관리가 되는 길을 허락받았다.》라는 기록에서와 같이 출신은 그리 좋지 않았다. 그리고 최세진 자신이 지은 《사성통해》의 서문에서 《집안에서 전해내려오는 학문을 공부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기록을 보면 그의 가정이 대를 이어가며 역학에 종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672년에 과거시험에 합격하여 한학교회 자헌대부 중추부 지사(정2품)에 오른 김지남이 1682년에 신이행, 김경준과 함께 한어어휘집 《역어류해》 2권을 간행하였는데 그의 가정도 대를 물려가며 역학에 종사한 가정이었다.

김지남의 아들 김경문은 1690년에 과거시험에 합격하여 한학교회 자헌대부 중추부 지사에 올랐으며 외교사업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있던 그에 의하여 역대 중국과의 외교관계력사를 개괄한 《통문관지》(12권)가 출판되었다.

그의 손자 김홍철은 1715년에 과거시험에 합격하여 한학교회 자헌대부에까지 올랐는데 《역어류해》의 불비한 점을 보충하기 위하여 《역어류해보》 1권을 간행하였다.

1765년 한어교과서인 《박통사신석》 1권을 간행하고 이어 《박통사신석언해》 3권을 편찬한 김창조는 한학상통사 승록대부 중추부 지사까지 지낸 김시유의 아들로서 1711년 과거시험에 합격하여 한학교회 승록대부 중추부 지사에까지 올랐다.

이러한 한학자들외에 가정적으로 물려가며 역학에 종사한 역학자들중에는 왜학자들도 있다.

1732년에 역과 왜학에 합격한 최학령이 여러차례 일본에 래왕하는 기회를 리용하여 《첩해신어》를 개수하였는데 그는 왜학교회 승록대부 중추부 지사에까지 올랐고 그의 동생 최봉령도 1754년에 왜학에 합격하여 왜학교회 승록대부 중추부 지사가 되었다.

최학령과 《첩해신어》의 개수에 참가한 현계근은 1747년에 역과 왜학에 합격하여 왜학교회 가선대부 중추부 지사에까지 올랐는데 그의 아버지 현심은 역과 판관이였다.

《첩해신어》와 같은 회화용교재외에 왜어류문별어휘집인 《왜어류해》 2권 2책의 간행자로 알려진 홍순명도 17세기 전반기의 왜어역관이였던 홍희남의 손자로서 1705년에 과거시험에 합격하여 왜학교회 통정대부에까지 오른 역관이다. 그의 할아버지 홍희남은 1613년에 과거시험에 합격하여 6번에 걸쳐 일본에 다녀왔으며 왜학교회 승록대부 중추부 지사에까지 올랐다.

이처럼 조선봉건왕조시기 역학은 가정적으로 대를 물려가면서 진행된것이 특징이다.

중세 우리 나라의 외국어연구정형에서는 이밖에도 여러가지 특징적인 측면들을 더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중세 우리 나라 외국어연구정형에 대한 연구를 여러 측면에서 심화시켜나감으로써 사람들에게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더욱 높여주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